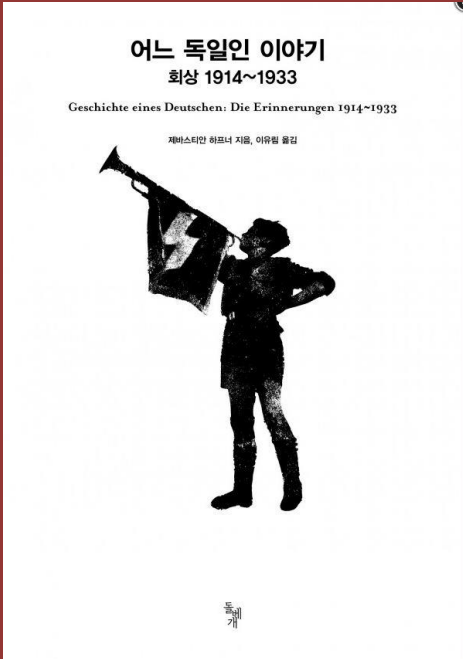


2018년은 이름만 들으면 별 것 아닌 듯한 “수정의 밤”, 즉 1938년 11월 10일 사건이 발생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1933년 5월 10일 베를린, 6월 23일 마인츠 등 여러 곳에서 책을 불살랐던 사건이 발생한 지 8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사회주의 폭정이 지배하던 시기에 정치적·문학적 카바레의 역할에 대해 제바스티안 하프너는 유고집 “어느 독일인 이야기”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물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막막함에 대해서는 무엇을 한들 바뀔 일은 없다는 사실에 동감하는 바이며 이를 그저 무시하고 우리의 쾌락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0년 전 어느 젊은 부부는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비록 그 날 밤이 위험과 상실이 깃든 사랑의 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카바레에 간 것은 특별히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라 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했을 것이고, 둘째, 불쾌한 자들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제일 적게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가 매우 냉혈하고 두려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인간의 감정적 약점을 나타내는 신호일 뿐이며, 우리가 겪고 있던 고통스러운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발생하는 독일 내 사건들의 가장 불길한 특징 중 하나조차에도 이 일반화를 허용하고 싶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가해자가 빠져 있고 그의 고통에는 순교자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반 마취의 일종으로, 객관적으로 괴물 뒤에있는 얇고 비참한 느낌의 물질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어리석은 소년이 장난이나 쳐보려는 기분에서 저지르는 것이고, 자기 기만과 도덕의 죽음은 별 거 아닌 혼란스러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육체적 순교조차도 대략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그 날에 겪은 진절머리 나는 일에 대해 과분한 보상을 받았으니, 카타콤브에 갈 기회가 생겼는데 이야말로 그 날 저녁 두 번째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에서 독창적인 저항이 있었던 유일한 공공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용감하고 재치 있고 우아한 곳이죠. 아침에는 프로이센 법원이 수세기 전의 전통이 무색하도록 나치 당원 앞에서 무례하게 붕괴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녁에는 베를린 카바레 배우들이 일체의 영광스러운 전통 없이도 우아하게 존엄을 구해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법원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카타콤브는 일어섰습니다.

죽이겠다는 위협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높아 다가오는 종말에 직면했을 때 베르너 핀크가 보여준 모든 면모가 일종의 승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작은 카바레 콩페랑스가 제 3제국의 역사 속에서 드높인 자신의 지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명예로운 몇 안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 면모를 살펴 보죠. 그는 영웅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마침내 하나가 되었을 때 반기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혁명적인 배우도 아니고, 물어 뜯는 조롱을 하지도 않았고, 새총 쏘는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깊은 존재는 무해하고 친절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농담은 부드럽고, 춤추면서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는 말장난이었고 이를 통해 그는 점차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숨겨진 펀치라인"을 고안했습니다. 물론 펀치라인을 숨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특질이 근절 목록에 있던 나라에서 그는 무해하고 친절한 천국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해함과 우호적인 면모 속에서 진정한 용기가 "숨겨진 펀치라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나찌의 현실에 대해 감히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중부에서요.

그의 콩페랑스에서는 강제 수용소, 집안 수색, 일반적인 불안감, 일반적인 거짓말을 다뤘습니다. 그의 조롱 거리에는 말할 수 없이 조용하고 우울하며 슬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범한 편안함의 힘이 있었습니다.

1933년 3월 31일은 그가 누렸을 가장 멋진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집은 열린 심연처럼 그 다음 날을 응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핀크는 청중을 웃겼고 그 청중의 웃음은 들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애처로운 웃음, 신생아의 티 없는 웃음, 항의의 웃음, 그리고 좌절감에서 오는 웃음이었고, 위협은 이러한 웃음을 발생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SA가 집 전체를 체포할 수 있을 만큼 길지 않은 게 거의 기적이었을까요? 진심으로 우리는 그 날 저녁 경찰차를 보고 웃음을 터트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위협과 두려움과 분리가 된

